

『정신대』 민족과제로 부각시켜

우리가 된다

『정신대』가꾸는 『정신대』를 찾아

올해 초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서울鍾路區 中學洞 주한일본대사관앞에는 『정신대』시위가 벌어진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벌이는 이 시위에는 할머니 수 십명이 참여,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구호를 외쳐다다 끝내 북받치는 뒤흔들음으로 끝난다.

13
挺身隊은 제대친필의회

오랜세월 그들속에서 숨죽이고 살아온 이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정신대피해 노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수치와 굴욕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로 확대하면서 박제가 남편을 진상조차 제대로

생존자 증언·위안소화인 등 성과

매주 日 대사관앞 시위로 관심 지속 환기

유엔 인권위 정식 상정 등 맹렬 우면과 위



부의 사죄와 보상을 위한 소송과 해외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일제의 잔학성을 고발하고 국내외의 여론조성에 힘써왔다.挺身隊의 이같은 활동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유엔정부의 태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발족후 한동안 무관 심의 벽 앞에서 안간힘을 쓰던挺身隊은 지난해 9월 金學順씨(68)의 공개 증언을 계기로 수십 년 간 묻어둔 피해자들의 사연을 발광해내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전화 가 2백여건에 확인된

생존자만도 종군위안부 46명, 그중정신대 78명 에 달한다.挺身隊측은 일본에 걸려온 정신대 여성이 모두 1백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挺身隊이 정신대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지 답사를 기초로 『정신대 문제자료집』을 펴내는데 어, 지난7월엔 위안소가 부산影島에도 있었다 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挺身隊이 개설한 피해 신고 전화에 접수된바에 의하면 종군위안부들은 한결같이 日帝의 만행에 서 벗어나지 못하며 악몽

과도강제압박을 경험해왔다. 피해자들은 건국후에도 가족과 고향을 등진채 주위의 눈총과 지적감으로 철저히 단죄를 받기도 했다.

〈지난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과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있다. 이때부터 이시위는 매주 수요일로 정례화돼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돌아와야 하는 적과제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실존적 보상을 받아낼때까지 우리의 활동』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李成鐵기자】

1992 06. 24

소부와 최로사임들을 하며 『정신대』를 한탄하고 있었다.挺身隊은 『정신대』피해자들의 단합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梨花여대 축제때 증정장터를 마련하는가 하면 매일별로 잔치행사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

挺身隊이 이와 함께 일본내 여성인권단체 및 태국·필리핀·대만·홍콩 등 정신대 피해국 여성단체와 연대해 일제의 만행에 대한 국제적 고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문제를 정식제도로 상정해 놓고 있다. 또한 미온적인 정부태도에 항의, 청와대·외무부·국회등에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본정권에 계류중인 對日피해보상청구소송의 법률자문에 응하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挺身隊 尹貞효총대 표(60)는 『정신대』피해는 몇몇 여성의 수치이 아닌 민족 전체의 치욕이며, 유국민이 돌아와야 하는 적과제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실존적 보상을 받아낼때까지 우리의 활동』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05 35 00 10 00 40 20 15 15 00 10 20 00 10 20 30 00 50 50 00 20 00 50 55 1차적 원인제공자였